

문화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공연축제' 막 내려

파격·실험적 무대... 명품공연 관객 감동

총 9500명 관람... 발레 '백조의 호수' 등 큰 호응

'님을 위한 행진곡' 파외퐁한 춤으로 5월 이야기

작품 8편 중 절반이 무용... 장르 다양화 필요

광주시가 진행하는 가장 규모가 큰 공연 축제인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공연축제'가 지난 21일 브랜드 작품 '님을 위한 행진곡'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6월23일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김연수 무용단의 개작작 'Here Now So Long + ㅁ'으로 문을 연 이번 축제에서는 총 8편의 작품이 공연됐다. 15회 공연에 다녀간 관객은 모두 9500여명. 이 중에서 유료 관객은 6000여명이었다.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이틀간의 공연에 모두 3000여명이 다녀가며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김지영 등 정상급 발레리나의 완벽한 테크닉과 군무진들의 앙상블이 눈길을 끌었다.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이틀간의 공연에 모두 3000여명이 다녀가며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김지영 등 정상급 발레리나의 완벽한 테크닉과 군무진들의 앙상블이 눈길을 끌었다.

안은미 컴퍼니의 '심포카 프린세스 바리'는 지방 관객들에게 '무용의 신세계'를 경험케 해준 작품이었다. 지난해 에디버러 축제에서 찬사를 받았던 '심포카 프린세스 바리'는 파격적인 구성과 기존의 광주 무용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안무와 몸놀림 등이 인상적이었다.

작품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구성과 간결하지만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무대와 소품, 귀를 잡아채는 음악들이 어우러진 무대는 일부 관객들에게 다소 버거울 정도 있었지만 연달아 관람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지역 참여 단체들의 작품도 관객들을 만났다. 그룹 '일수'의 '인수화공', 극단 신명의 '연진가 불날엔' 등과 함께 무대에 오른 푸른연극마을의 '사평역에서'는 기존 작품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개작을 시도한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IMF 직후로 작품의 배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시대가 혼재되고 등장인물들의 특징도 뚜렷하

게 발현되지 않은 점, 음악과 노래 등이 작품 속에 녹아들지 않은 점 등은 자꾸 '원작'을 생각케했고 아예 현재로 배경을 옮겨 지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0~21일 공연된 브랜드 작품 '자스민 광주 2012-님을 위한 행진곡'도 눈길을 끌었다.

첫 도입부는 강렬했다. 15명의 무용수들은 무대를 장악했다. 심장을 쿵쿵거리게 하는 음악과 날것처럼 펼쳐지는 남성무용수들의 움직임이 시선을 붙들었다. 5분 넘게 이어지는 첫번째 군무신은 계속된 반복 동작으로 몰입도를 높였다.

이번에 제작진이 전면에 내세운 컨셉은 강렬한 춤이었다. 도청을 형상화한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은 5월 현장과 현재를 넘나들며 파외퐁한 춤으로 이야기를 건넸다.

안무까지 맡은 류장현씨의 춤은 몸이 표현해낼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줬으며 군무진들도 인상적이었다. 단출하지만 의미를 제대로 전달한 무대 장치와 조명, 저음의 첼로가 연주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 변주곡과 강렬한 락까지 포함된 음악들도 각인됐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해 제작된 '자스민 광주'보다는 관객들이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초반에 압도적이던 작품은 중반부 현재를 이야기하는 '3S 정책'을 그려낼 때 베그덕거렸고 두 가지 이야기를 결합시키는 부분이 다소 생뚱방아 보였다. 또 거짓된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마지막 군무 장면의 경우 극 초반에 이미 패를 다 보여준 듯해 피날레로의 강인한

인상을 주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

50여분의 짧은 무용 공연을 감안하면, 굳이 마이크를 잡고 5월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는 신들은 군더더기 처럼 느껴졌다. 이미 몸으로써 충분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가능했으니까.

공연 문화재단이 프로그램 선정에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공연된 작품 가운데 무용이 4편에 이른 점이나, 특히 외부 초청작대부분이 무용으로 채워진 점은 다양한 장르를 접하고 관객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이었다.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페스티벌은 상업 기획사와는 달리 실험성 있는 작품 등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작품을 소개하는 데 유리하다. 문화재단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페스티벌 '봄' 등 서울의 유명 페스티벌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직접 관람하며 '보석'을 발견해 내는 게 필요하다.

특정인 몇명의 호불호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한두번은 통할 지 모르나, 언제나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1일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공연축제'서 공연된 '님을 위한 행진곡' 한 장면.

광주시립극단 재창단 기념 '세익스피어 인 광주' 공연

지역서 보기 힘든 대작이었지만 작품 구성 등 완성도에서 '아쉬움'

올해 지역 문화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24년만에 재창단된 광주 시립극단이었다.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박운모)의 재창단 기념 공연작인 '세익스피어 인 광주'가 19~20일 두차례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기대를 반영하듯, 이날 공연장은 3000여명의 관객들로 가득찼다.

'세익스피어 인 광주'는 조선 후기 광주목 관산현, 어등산 아래 절골마을을 배경으로 각주를 둘러싸고 벌이는 음모와 암투, 그리고 절대적 악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민중들의 삶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민중들의 이야기를 그린 세미 뮤지컬 형식의 작품이었다.

리어왕, 햄릿 등 37편에 달하는 세익스피어 작품의 인물과 대사, 장면 등이 패러디 형식으로 극중에 삽입됐다. 또 작품 곳곳에 삽입된 춤과 노래들은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작품에 일부 포인트 역할을 했다.

특히 이번 작품은 60여명이 넘는 인원이 출연, 지역 연극계에서 보기 힘든 대작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 재창단을 주창하며 시민 속으로 들어가 농민군 등 20여명의 시민배우가 함께 무대에 올랐고, 강운태 광주시장과 희곡작가 한옥근씨 등의 카메라 출연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번 작품은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지난 5월 7일 극단을 창단, 2개월여만에 대작을 내놓는다는 게 다소 무리라는 점을 감안해도, 의욕만 앞세워 무대, 연기 등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 특



19~20일 광주문예회관에서 공연된 광주시립극단의 '세익스피어 인 광주'.

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극인들이 대거 참여, 지역 연극의 역량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한계를 노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도 나왔다.

무엇보다 3시간(인터미션 시간 15분 포함)이 넘는 공연 시간을 이겨내기에는 작품의 짜임새가 너무 헐거웠다. 또 기존 희곡 작품에 '광주'를 녹여내겠다는 창작 의도는 연극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기 보다는 단순히 영상 몇장면으로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그쳐 식상함을 줬다.

꼭 뮤지컬의 형식을 차용했어야 했는가 하는 점에서도 의문이 남는다. 극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 군무신 등 일부에 뮤지컬 형식을 차용했다면 극의 완성도에 도움을 줬겠지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비슷한 군무신과 두명의 여주인공이 부르는 이중창, 계류라의 독창 등은 오히려 작품을 느슨하게 만들고, 몰입도를 떨어버렸다.

무대와 조명 역시 실망스러웠다. 특히 개별 극단에서는 시도하지 못하는 대극장을 사용하고, 예산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천편일률적이고 단순한 무대, 다소 허접한 소품들과 포인트 없는 단순한 조명은 극히 실망스러웠다.

대극장 공연인 터라 마이크를 착용했음에도 배우들의 대사가 거의 전달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 세익스피어 작품의 묘미가 '대사'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대사들이 그냥 허공으로 흩어져 버린 결과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공연을 관람한 문화계 인사 A씨는 "첫 공연이라는 생각에 욕심이 많아 이것 저것 시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짜임새 있는 모습으로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첫출에 배우를 수 없고, 연극인들의 관심도 많으니 앞으로 작품 제작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미술 어렵지 않아요"

금호갤러리 내달 26일까지 '그림일기, 그림읽기'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들으며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전시회가 마련됐다.

금호갤러리가 다음달 26일까지 여는 '그림일기, 그림읽기'전은 어렵게 느껴지는 미술 작품에 대한 아이들의 친숙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 어린이 미

술관인 헬로우뮤지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김선숙·박지선·안성민·이정화·주랑·황혜선·이승일·박성완 등 10명의 젊은 작가들이 참여한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도슨트의 전시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만의 그림일기를 만들어보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학부모들에게도 가이



안성민 작 'Dream Bean'

드북을 제공한다. 문의 062-360-8436. /김지용기자 dok2000@

한창호 영화평론가 초청 24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문화강좌

광주시립미술관은 24일 오후 3시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한창호(사진) 영화평론가를 초청, 상록 문화강좌를 연다.

한씨는 이날 '영화는 미술을 어떻

게 이용하는가'라는 주제로 미술과 영화의 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씨는 이번 강의에서 1895년 프랑스 루미에르 형제에 의해 시작된 영화의 탄생 배경부터 영화 속 미술

이야기, 국내 영화문화의 할리우드화 현상 등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소개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영화학을 전공한 한씨



는 '영화, 그림 속을 걷고 싶다', '영화, 미술의 언어를 꿈꾸다', '그리고 예술은 영화를 상상했다' 등 미술과 영화의 연관성을 주제로 한 책을 출간한 바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무궁화호 무박2일 정동진/낙산사/휴휴암 기차여행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강원도 바닷가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열차상품!

출발일 8월 3일(금) 21:00경 광주역 출발 (무박2일)

여행비 85,000원 (어린이 : 75,000원)

여행코스 정동진/낙산사/휴휴암/주문진 어시장

※기차여행은 지역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기차여행

임진각 제3망골(DMZ) 당일- KTX 79,000원

남이섬 자유여행 KTX / ITX 69,000원~

서울 시티투어 KTX 75,000원~

여주신록사/mbc 드라마마 무궁화호 당일 55,000원

임진각 제3망골(DMZ) 무궁화호 당일 45,500원

임진각 제3망골(DMZ) 당일- KTX 79,000원

남이섬 자유여행 KTX / ITX 69,000원~

서울 시티투어 KTX 75,000원~

여주신록사/mbc 드라마마 무궁화호 당일 55,000원

임진각 제3망골(DMZ) 무궁화호 당일 45,500원

교과서투어 (DMZ/수원화성/행궁) 1박2일 KTX 155,000원~

교과서투어 (수원화성/행궁) KTX 69,000원~

골프투어

제주도 1박2일(36홀) 280,000원~

단체및 개인 해외여행 접수받고있습니다

섬여행

1박2일 홍도/속산도 169,000원~

2박3일 울릉도/독도 365,000원~

1박2일 제주도 불루나래호 140,000원~

2박3일 제주도 불루나래호 160,000원~

1박2일 보길도/청산도 155,000원~

버스여행

당일 에버랜드 35,000원

당일 임진각 3망골 DMZ 59,000원

당일 수원화성/행궁 55,000원

1박2일 수원화성/행궁/인속미역전 165,000원

1박2일 설악산/백담사 150,000원

2박3일 설악산/백담사 210,000원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몰러스 건너편)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sojang.com